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RA 유지윤



키움증권

미 증시, 미-이란 휴전 협상 기대에도, 반도체 및 AI 불안 요인으로 혼조세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27일(월) 미국 증시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 기대감에도, 중국 기업의 DUV 노광장비 개발 소식, 엔비디아(-5.0%)의 순환투자 논란 재부각 여파로 ASML(-5.8%), 마이크론(-2.3%), 샌디스크(-11.0%) 등 반도체주들이 동반 약세를 보이면서 혼조세 마감(다우 +0.51%, S&P500 +0.02%, 나스닥 -0.18%,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2%).

지난 1~2주간 증시 불안을 자극했던 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이들 간 협상 기대감이 재차 부각된 영향에 힘입어 완화되고 있는 모습. 그 덕분에 한때 90달러대 돌파를 시도했던 WTI가 현재 80달러대를 하회하고 있으며, 4.7%를 상회했던 미 10년물 금리도 4.64%대로 내려가는 등 매크로 부담은 덜어낸 상황.

그러나 여전히 주도주인 AI, 반도체를 둘러싼 노이즈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고민거리로 남아있음. 어제만 하더라도, 중국 기업이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DUV 노광장비를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뉴스만으로도 반도체주의 주가를 끌어내렸던 상황. 즉, "CMXT 등 중국 메모리 업체들의 중국산 DUV 도입 -> 장비 조달 병목 완화 -> 증설 능력 증가 -> 범용 DRAM 공급 확대 -> 글로벌 메모리 경쟁 심화"의 우려를 만들어 내고 있는 실정.

물론 제조업체 이름, 성능이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으며, 초기 물량이 5대(2027년 20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ASML의 생산능력(26년 130대 목표 제시)이 여전히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 다만, 7월 이후 반도체주가 급격한 조정을 겪으면서 투자심리가 취약해지다 보니, 중국 DUV 장비 생산 뉴스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엔비디아의 순환투자 논란도 마찬가지. 작년에 오픈 AI 순환투자 이슈와 동일한 사안이나, 주말 중 SK하이닉스와 대규모 장기 협력 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들이 순환투자의 지속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 이처럼 단기적으로는 중국 경쟁 이슈, 순환투자 이슈로 인해 변동성이 높아질 소지는 있겠지만, 주 중반 이후 국내 반도체 및 미국 하이퍼 스케일러 업체 실적들을 통해 상황 반전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갈 필요.

전일 국내 증시는 주말 중 미국의 이란 공습 중단 소식에 따른 유가 급락 등으로 상승 출발한 이후 장 중반까지 중국 CXMT 주가 폭등에 따른 메모리 업체 경쟁 심화 우려 등으로 급락하기도 했으나, 이후 2분기 실적시즌 기대감 속 기관과 개인의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 상승 마감(코스피 +1.0%, 코스닥 +2.2%).

금일에는 미-이란 갈등 완화에 따른 유가 급락 및 금리 하락 등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에도, 중국발 노이즈로 인한 마이크론 등 미국 반도체주 약세 여파로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전일 장중 등락을 반복하는 변동성 장세가 연출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가의 진폭은 이전보다 덜해지고 있는 모습. 일례로, 27일 기준 VKOSPI는 77.6pt로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난 6월 8일(76.6pt) 이후 약 33거래일 만에 최저치를 기록(6월 29일 고점인 96.9pt 대비 약 20% 하락한 레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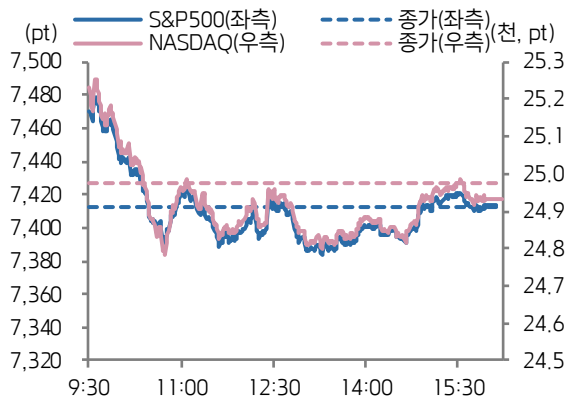
물론 절대적인 레벨은 여전히 역사적 평균(20pt)를 큰 폭 상회하며, 70pt대 레벨은 이론상 일간 변동성으로 환산 시 +/-4%대의 주가 등락률을 보일 가능성이 존재. 그러나 7월 1주 차 평균이 91pt → 2주 차 84 pt → 3주 차 85 pt → 4주 차 82pt로 하향 안정화 단계에 들어간 점은 국내 고유의 비정상적인 변동성 증폭 현상이 정점을 통과하고 있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판단.

한동안 코스피 변동성의 출력을 인위적으로 키웠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 27일 기준,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포함) 거래대금이 코스피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3%로 7월 평균(35.7%)을 하회하고 있으며, 거래대금 회전율도 77.7%로 지난주 100%대에서 낮아진 상태.

다른 한편으로는 전일 중국 과창판에 상장한 CXMT의 465%대 주가 폭등이 국내 반도체주의 수급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 유통물량 자체가 6%대에 불과하므로 물량의 희소성이 주가 급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운데, 과창판 특성상 상장 이후 5거래일간 가격 제한폭이 없는 만큼(6거래일부터 +/-20%), “CXMT 주가 폭등 → 글로벌 자금의 중국 CXMT 익스포저 확대 수요 발생 → 국내 반도체주 상대적 수급 약화” 가능성을 제기해볼 수 있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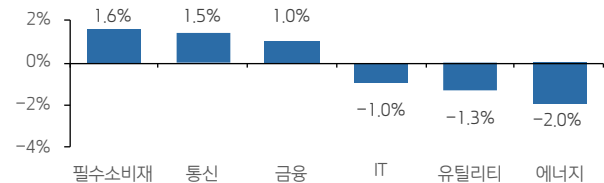
그러나 아직 CXMT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후강통 종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CXMT 상장 흥행이 심리적인 영향(중국 메모리 업체와 경쟁 심화 노이즈 등)을 줄 수 있겠지만, 실제 수급 이탈 여지는 제한적임을 시사. 결국, 현재 국내 증시는 “밸류에이션상 바닥권 영역 도달 + 주가 및 수급 변동성 정점 통과”의 국면에 진입한 만큼, 조정 시 주도주 중심의 분할 매수 대응 전략이 실효성은 더 클 전망.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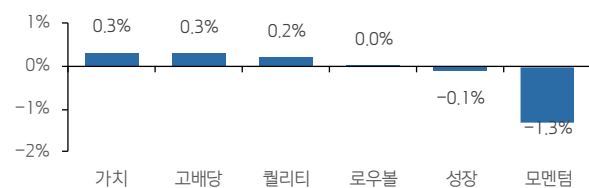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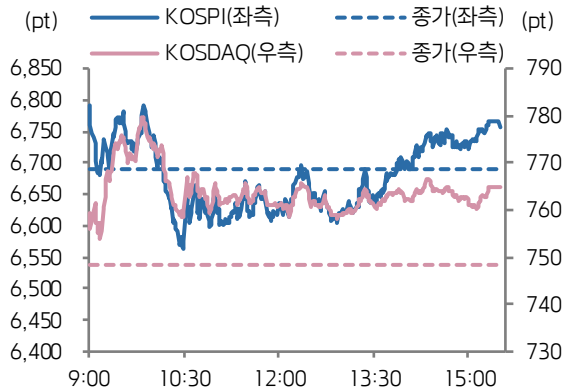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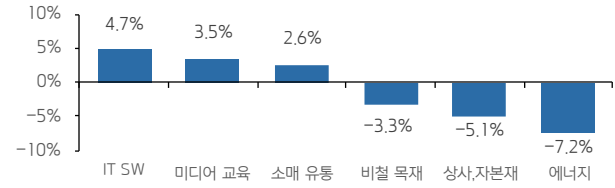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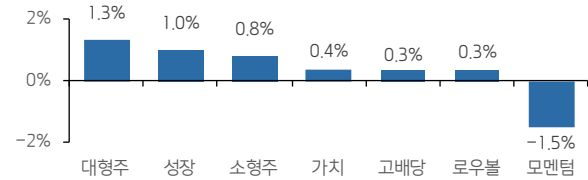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업종별 주가 등락을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336.91	+1.17%	+23.93%	GM	87.04	+5.32%	+7.03%
마이크로소프트	389.10	+1.94%	-19.54%	일라이릴리	1,197.53	+0.13%	+11.43%
알파벳	326.56	+2.13%	+4.33%	월마트	111.74	+2.07%	+0.3%
메타	593.87	-0.22%	-10.03%	JP모건	356.20	+0.85%	+10.55%
아마존	231.39	-0.31%	+0.25%	엑손모빌	154.77	-1.38%	+28.61%
테슬라	309.22	-1.22%	-31.24%	세브론	190.00	-2.46%	+24.66%
엔비디아	196.51	-4.99%	+5.37%	제너럴일렉트릭	111.74	+2.1%	+0.3%
브로드컴	383.22	+0.34%	+10.73%	캐터필러	873.28	-1.74%	+52.44%
AMD	494.95	-5.17%	+131.11%	보잉	211.50	+0.95%	-2.59%
마이크론	900.20	-2.25%	+215.41%	넥스트에라	88.83	-1.1%	+10.7%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6,755.75	+0.97%	+60.31%	USD/KRW	1,467.50	+0.58%	+1.95%
코스피200	1,069.22	+1.29%	+76.44%	달러 지수	101.50	+0.04%	+3.24%
코스닥	764.86	+2.22%	-17.35%	EUR/USD	1.14	-0.01%	-3.21%
코스닥150	1,301.36	+3.21%	-15.9%	USD/CNH	6.77	-0.09%	-3.01%
S&P500	7,413.18	+0.02%	+8.29%	USD/JPY	163.75	-0.05%	+4.49%
NASDAQ	24,932.08	-0.18%	+7.27%	채권시장			
다우	52,210.08	+0.51%	+8.63%	가격	DTD(bp)	YTD(bp)	
VIX	18.67	+0.48%	+24.88%	국고채 3년	3.867	-8.6bp	+91.6bp
러셀2000	2,948.04	+0.62%	+18.78%	국고채 10년	4.330	-11.5bp	+94.5bp
필라. 반도체	11,554.88	-2.23%	+63.13%	미국 국채 2년	4.322	-0.8bp	+84.9bp
다우 운송	22,066.31	-1.82%	+27.13%	미국 국채 10년	4.649	-2.8bp	+48.2bp
				미국 국채 30년	5.137	-2.1bp	+29.3bp

상해종합	3,858.25	+1.15%	-2.79%	독일 국채 10년	3.133	-3.9bp	+27.8bp
항생 H	8,365.38	+1.14%	-6.15%	원자재 시장	가격	DTD(%)	YTD(%)
인도 SENSEX	76,835.78	+1.02%	-9.84%	WTI	82.61	-7.5%	+44.9%
유럽, ETFs	가격	DTD(%)	YTD(%)	브렌트유	88.36	-8.7%	+45.21%
Eurostoxx50	6,282.21	+0.02%	+8.47%	금	4,136.40	+0.16%	-8.03%
MSCI 전세계 지수	1,108.08	+0.24%	+9.21%	은	58.47	-0.31%	-17.18%
MSCI DM 지수	4,788.90	+0.13%	+8.09%	구리	633.90	+0.3%	+11.56%
MSCI EM 지수	1,628.03	-2.62%	+15.93%	BDI	2,743.00	+0.66%	+46.14%
MSCI 한국 ETF	161.20	-1.08%	+65.81%	옥수수	474.00	-2.77%	+2.93%
디지털화폐	가격	DTD(%)	YTD(%)	밀	660.00	-2.65%	+20.93%
비트코인	64,906.26	+0.48%	-25.95%	대두	1,213.75	-3.17%	+14.02%
이더리움	1,945.26	+1.72%	-34.67%	커피	324.55	+3.43%	+1.37%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7월 27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